

지역 소식통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8월까지 무료 운영

육정호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옛 구절초 테마공원, 이하 구절초 정원)을 하늘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전북의 유일한 지방정원인 구절초 정원에 대표적인 산악형 어드벤처 놀이시설인 짚와이어를 설치, 무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짚와이어는 구절초 정원에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 보이는 부치봉(200m) 정상에 출발해 추령천과 잔디광장을 가로질러 정원 한 중앙에 도착한다. 총 길이는 550m로 2개 라인으로 구성됐다.

시는 오는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료 운영 후 9월부터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이고, 동절기(12월~2월)에는 휴장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바다 오염물질

무단 배출어선 처리 추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오는 6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유(폐유허유)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방지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선저폐수란 빌지(bilge)라고 불리며,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섞여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고인 액상 유성 혼합물이다.

선저폐수는 선박에 부착된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으며, 장치가 없는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청정수업체 또는 육상지정폐기물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제역 유입 차단 방역 총력

“축산농가 모임 자제해줄 것”

정읍시, 방역상황실 운영...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축산차량 소독 실시

충북 청주시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정읍시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24시간 축산차량 소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거점소독시설은 당초 정읍시 용계동에서만 운영됐지만,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가 많이 위치한 정우면에도 5월 31일까지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전파하고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소, 돼지 사육 농가에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는 50두 이상 농가, 소규모농가 중 일제접종 희망 개체가며, 돼지는 모든 및 120일령 이상의 비육돈이다. 접종 제외 대상은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2주 이내 출하가축,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다.

구제역 백신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되며, 공급 받은 백

신은 자가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실시

부안군은 충북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10건이 발생함에 따라 17일부터 관내 소(50두 이상 사육)·돼지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모든 소·염소 및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나, 최근 충북에서 구제역이 4년여만에 발생함에 따라 항체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급 보강접종을 명령했다.

백신 접종 대상은 소 227농가 2만 4천두, 돼지 18농가 1만 5천두이다.

소 50두 이상 사육·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 대상 구제역 예방백신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상황인만큼 군에서 백신을 긴급 확보하여 무상공급하였다.

군 축산유통과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농장 차단방역, 주기적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축산농가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구제역 발생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가축 전염병이다. 침을 삼하게 흘리고 입 주변과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겨 폐사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1종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부안=김석진 기자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방문 우호 · 고창 농특산물 협약

심덕섭 고창군수, 국제 우호도시 협약차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출장

심덕섭 고창군수가 18일부터 5월 17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 방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말레이시아 사리왈주 미리시와 우호결연 협약체결, 고창 농특산물 업무협약 체결 등의 빠른 일정으로 채워졌다.

19일 출장단은 말레이시아 사리왈주 미리시로 향한다. 미리시 아담 이시우 상 시장과 우호결연도시 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이후 미리시 행정기관을 방문해 양 도시간 교류 사업 협의 등이 진행된다.

20일 미리시 시 승격기념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 고창군은 고창 농특산물 홍보·시식 및 고창 방문의 해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고창 각 농협별 제품을 전시하고 복분자즙·젤리·사탕 등 다양한 시식제품을 마련해 고창 농특산물을 전 세계에 소개한다.

또한 고창방문의 해 이벤트 등을 진행해 국제무대에 고창을 알릴 계획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선 말레이시아 NH유 통 대표 면담과 말레이시아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인 KMT(대표 이 마

태오)와 고창 농특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출장단은 싱가포르로 향해 한국식품진흥위원회사인 고려무역과 수출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말레이시아 미리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 내실있는 교류를 진행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고창을 방문하고,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해외로 뿔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

부안천년의숨씨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종석)이 지난 17일 부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을 갖고 부안군 농산물 선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김영일 농협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식전 행사인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식후 행사인 시설 관람과 시음회로 마무리 되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총 사업비 23억원(국도비 10억원, 군비 4억원, 자부담 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행안부 대초리 일원에 부지 8,088.2㎡, 연면적 1,968.64㎡ 규모로 집



부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식 모습

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회의실 등 조합원들이 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시설로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농산물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부안군 농산물의 부가치와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부안군의 신선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스마트농업이 답이다”... 정읍시 농기센터 내 스마트 온실 구축

정읍시가 농업 기술센터 내에 1천344㎡ 규모의 스마트온실을 구축했다.



스마트온실에는 세 구역의 온실과 양액 공급실, 제어실 등이 조성됐다.

시는 지난 17일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농협 관계자, 시설원에 작목 재배 농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준공 기념식 후 시설을 둘러보며 세부 시설과 스마트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앞으로 정읍농업 스마트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다. 즉, 조건이 다른 온실 세 구역의 조건에 맞는 양액의 양 제어 방법 등을 찾아 지침서를 정립해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을 작목별 스마트팜 전문 지도사로 양성해 농가의 기술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온실이 작목별

스마트팜 전문지도사 양성과 표준 생산 매뉴얼 기술교육 등 정읍농업 스마트화의 거점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어려움에 처한 농촌문제의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마련과 민간류 실증재배 온실 운영 등 스마트농업 기반 마련과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산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관리하며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하는 농업을 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나서

정읍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의 특성상 영농철이면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며 “이러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내달까지를 집중 추진한다. 부서별 1회 이상 참여 등 시산하 전 직원이 일손 돕기에 나서는 한편 기관과 단체, 시민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참여 방법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참여하고 싶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농업정책과에 희망 일지와 장소, 참여 인원 등을 밝히면 농가를 연결해준다.

시는 홀로 살거나 장애가 있는 등의 취약 농가와 과수와 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기상재해 피해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벼 못지리와 과실 수기, 마늘과 양파 등의 묘 옮겨심기 등의 농작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